

2023년 제3회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목 차

1. [총장상] 가난과 눈물과 잠 - 임민영	3
2. [교무부총장상] 내가 체리를 키운다. 체리가 나를 키운다. - 김민지 ..	6
3. [교무처장상] 8:2 - 김동준	8
4. [교양교육원장상] 3.5×4.5 - 정해은	11
5. [교양교육원장상] 나를 키우는 팔 할은 너의 세계다. - 박가람	14
6. [교양교육원장상] 새 같은 그 소녀 - 양정약	18

[총장상]

가난과 눈물과 잠

임민영(한문학과)

잠이 지니는 죽음의 성질을 느낀 적 있다. 침대에 누워서, 아래로 아래로 깊이 빠져드는. 가난과 눈물이 제공하는 그 어두운 잠을 먹고 나는 자라났다.

어릴 적 서울에서 골목을 오르고 오르며 나오는 반지하 집에 살 때 어머니 아버지는 거실 겸 부엌이었던 곳에서 몇 안 되는 살림살이를 던지며 싸웠다. 주로 돈 때문이었다. 일곱 살의 내 키만한 의자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보다, 혹은 바닥을 뒹구는 유리 조각을 밟고 새어나오는 새빨간 피를 상상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듣지 못하는 어머니의 격앙되고 찢어지는 목소리와 아버지의 욕설 섞인 고함이 가장 무서웠다. 그럴 땐 무엇을 했더라. 문을 열고 나가면 방에 들어가라는 호통을 들었다. 방 안에서는 부러 크게 소리 내 울어도 보았지만 그치지 않는 날카로운 소리에 이내 포기했다. 그러고는 폭신한 이불 속에 기어들어가 두 눈을 꼬옥 감고 작은 손으로 귀를 막은 채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애석하게도 기다림의 시간은 더디고 더디기만 해서 나는 바깥의 소리 말고 다른 감각에 집중해야 했다. 두꺼운 이불 속 깃털의 사부작거리는 감촉, 베개에 실로 박힌 토끼 얼굴의 윤곽,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껴안아 줄 듯한 매트리스의 폭신함, 기둥 하나가 빠진 침대가 내는 끼익 끼익 소리, 간밤 나를 토닥이며 재워준 아빠의 스킨 냄새, 몸을 감싼 잠옷의 온기, 벽 안에서 흐르는 물 소리, 땀이 식고 있는 허리께의 끈적임..... 그러다 눈물자국을 달고 부은 눈으로 일어나보면 모든 게 끝나있었다. 이것이 내 최초의 '잠'.

예전과는 달리 목청 아니면 몸으로만 부딪치는 부모님을 보고 두 분 다 나이가 들어서 힘에 부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머리가 큰 후에는 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모님이 싸울 때 모른 척 잠을 자고 일어난다 해도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짓는 엄마를 안아드려야 했고 술 마시면서 울음 섞인 말을 내뱉는 아빠를 위로해야 했다. 혹은 잠도 들 수 없도록 아예 내 이름을 찢어지도록 부르시기도 했다. 엄마는, 애, 나와 봐. 네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 아빠는, 얼른 문 닫고 들어가! 이젠 익숙해진 이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이 현장에 존재하면 존재하는 대로 화를 돋우고, 방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부모에게 무관심한 불효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경험상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두 분이 움직이다 부딪힐 수 있는 낮은 탁상을 저 멀리로 밀어버리고, 유리로 된 컵과 접시는 설거지통에 넣고, 분위기가 너무 상기된다 싶으면 둘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러다 보면 아빠가 나가면서 집은 잠잠해진다. 문밖에 나가 담배피는 아빠나,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는 엄마나, 두 분 사이를 막다 생긴 작은 손톱 자국이나 빨간게 눌린 자국이 남은 내 팔이 참 애처롭다. 애처롭다고 생각해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니 자고 싶어진다. 더는 생각하기가 싫었다. 어떤 감정을 느끼기에는 지친 것 같았다. 잠을 잤다.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 두 분은 싸울 때의 목소리 크기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신다. 한때 아침마다 내 팔다리 쪽쪽이를 해주고 대기업에 출근했던 아빠는, 비오는 날 밥 굶으며 오토바이로 하루 종일 배달해서 오늘은 두둑이 벌었다고 뿌듯하게 웃으신다. 나는 열 살쯤 자전거에서 한 번 넘어진 것이 그리도 무서워서 다시 탈 생각도 못



했는데 아빠는 미끄러운 물 바닥에서 넘어지고 팔이 부러졌어도 움직일 만해지자 바로 다시 시동을 걸었다. 돈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 못 하면 못쓴다며 그 돈으로 내 등록금을 내주셨다. 그것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엄마는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공부 좀 한다는 딸 학원은 못 보내도, 과외는 못 시켜도, 물 한 번 안 묻히고 귀하게 키우셨다. 나도 그것을 알기에 수학 학원 다니고 싶다는 말을 삼키고 혼자 온 것만 여러 번이다.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 260에 학교에서 준 장학금 90만 원에 마냥 기쁘지 않고 슬픈 마음이 든 것도 그 때문이다. 등록금 걱정은 덜었다는 것에 활짝 웃었다가 잠에 잠겨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랑이라는 것에도 나는 일종의 피곤함을 느껴서 쉽게 지친다. 사랑받을수록 내가 없었다면 등록금이나,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값이나,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지불하는 그들의 감정의 가치 등등이 더 나은 상황이었으려나? 나는 격양된 목소리들과 나를 향하는 과분한 사랑과 자격지심과 돈과 웃음과 눈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도피 본능을 지녔나 보다.

그리고 그 본능이 말하길, 수면만큼 달콤한 도피는 없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잠에 빠져들면 내가 죽어 없어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죽어 없어진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나의 감정과 나의 믿음과 나의 세계만 존재하다가도, 내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의식이 멀어지는 것. 그 느낌은 물속에 가라앉는 것과 유사하다. 지금보다 더 어릴 적, 수영장에서 물에 뜬 채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리와 팔을 끊임없이 휘저으며 호흡하는 방법만 연습하다 지쳐서 물속에 스르르 주저앉아 느낀 감각을 기억한다. 일시적인 시간의 정지. 흙과 물이 아니라 파아란 타일과 물로 이루어진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디고 관찰하는 것. 외부의 모든 소리는 멍멍하게 물에 먹혀들어 갔다. 물안경 너머의 다리들은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가진 개별적인 생물인 듯했다. 사방이 지구의 대기 대신 물로 가득 차 있고, 새로운 중력이 지배하고, 바람이 부는 대신 물 덩어리가 소름이 오소소 돋은 팔뚝 피부에 일렁였다. 손으로 막은 코에서 하나둘 올라오는 공기 방울만이 내 원래 세계와 물속 세계를 연결하는 것 같았다. 호흡은 멈추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안락했다. 그러다 숨이 가빠올 때쯤 그곳에서 빠져나와 생각했다. 어머니의 양수가 이런 느낌이었겠다고.

실제로 잠은 죽음만 닮은 것이 아니라 탄생도 닮았다. 사망 후 시체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배설물이 빠져나오듯, 침대에 누운 채로 눈물을 흘리거나 이따금 쏟아내고 나면 나는 텅 빈 인간이 된다. 비었다는 것은 채울 수 있다는 말이다. 소모된 몸과 마음, 즉 세포를, 생각을, 믿음을, 나의 세계를 재건하는 것이다. 건강한 세포로 내 몸을 다시 구성할 때까지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수면이 나의 영혼의 근원이자 창조의 주체이기 때문일 터이다. 따라서 나의 '잠'은 물이면서, 죽음임과 동시에 탄생이기도 하다. 편안하고, 포근하고, 때로는 무서운 것. 피하고 싶지만 빨려드는 것. 흐르는 것. 어머니의 양수 혹은 시체의 진물. 순환의 최초이자 최후 그 자체. 서서히 잠겨 드는 일. 삶이란 느리게 죽어가는 과정이기에.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강과 같은 평화를 바라다가도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드는 파도 앞에서는 뒷걸음질치곤 한다. 이상하지, 강의 모습을 하고 있든 바다의 형상을 띠고 있든 결국 본질은 물일진대. 물론 나도 그 간사한 인간 축을 벗어나지는 못해서, 침대에서는 온갖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낸 경험은 거의 전무하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툭 튀어나온 말에 찢린 듯 아파할 부모님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안의 것을 말로 내뱉는 것 대신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기는



것을 택한다. 그동안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모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려나. 머그잔, 페트병, 욕조, 어항. 방이 온통 짠맛이 나는 물로 가득 찬다면 나는 헤엄쳐야 할까 가만히 물을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곤 실없는 생각이라고 픽 웃다가, 방 벽지 한켠에 거뭇거뭇하게 스며든 물인지 곰팡이인지의 얼룩을 보고 영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겠어, 혼잣말을 뱉었다.

[교무부총장상]

내가 체리를 키운다. 체리가 나를 키운다.

김민지(기계공학부)

방울토마토, 사과, 딸기, 키위... 간식으로 과일을 싸와서 나눠 먹는 게 고등학교 때 우리들 사이의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파오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신선하고 새콤달콤한 과일 간식은 절실한 존재였다. 2019년 어느 날 칠레 산 생 체리 스무 알이 친구가 준비해 온 그날의 간식이었다. 둘이서 신나게 나누어 먹고 보니 책상 한쪽에는 씨앗이 쌓여있었다. 친구는 내게 이것들을 한번 심어보자고 제안했다. 갑작스럽고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생각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체리 씨앗을 깨끗이 닦아 들고 나갔다. 중앙현관 앞 화단이 눈에 띄었다. 덩성덩성 잡초가 자라고 있는 적당한 곳을 찾아 땅을 파고 체리를 심었다. 남들의 눈에는 땅에 쓰레기를 묻은 건지 씨앗을 심은 건지 구분하지 못할 수준의 파종 작업이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체리를 심었다.

그날 내내 우리는 기대에 부푼 상상을 했다. 상상 속 체리는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자라났다. 곳곳한 나무가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던 화단 속 체리가 드디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체리 나무 아래는 우리 학교의 새로운 단체 사진 명소가 되었다. 나무 아래에 웅기증기 모여 찍은 단체사진은 매년 발행되는 졸업앨범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봄이 되면 급식으로는 체리가 나왔다. 달콤한 체리는 학생들이 가장 반기는 인기 메뉴 중 하나였다. 체리 나무의 영향력은 멈출 줄을 모르고 커져만 갔다. 장미와 잣나무를 밀어내고 체리 꽃과 체리 나무가 교화, 교목의 자리를 꿰차고 나서야 이 실없는 상상이 끝을 맺을 수 있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 학교를 정복하다니, 따분한 학교 공부에서 잠시 벗어나기에 딱 좋은, 펍 재미있는 대화 주제였다. 하지만 '체리 나무의 OO고등학교 정복기' 이야기 짓기 놀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폭풍같이 몰아치는 내신 시험과 끊임없는 모의고사에 시달리던 우리에게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입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1순위가 되었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에는 하나 둘 흥미를 잃었다. 심지어 화단에 체리를 심었다는 기억조차 흐려져 갔다.

하지만 나만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리 나무 이야기가 머릿속에 자리 잡아 떠날 줄을 몰랐다. 체리는 화단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슬며시 뿌리를 내렸다. 그저 장난처럼 시작했던 상상 속의 체리 나무 이야기는 칙칙한 수험생의 생활에 즐거움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중앙현관으로 등교할 때마다 화단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느새 습관이 되었다. 매일같이 등교하며 인사를 건네듯 화단 한구석에 들렀다. 햇볕이 뽀뽀해 며칠 동안 흙이 바싹 말라 있으면 오다가다 물도 한 번씩 주곤 했다. 새벽같이 등교할 때는 화단 앞에 혼자 가만히 서서 씨앗을 심은 자리를 들여다보며 차분히 마음을 다잡았다. 때로는 말 못 할 고민을 땅속에 전하기도 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그때 내게 체리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상담사였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화단 한구석은 나만의 쉼터이자 놀이터이자 상담실이였다.

꾸준한 관심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년의 졸업식 날까지 체리는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 졸업식 날 아침, 마지막으로 등교하며 화단을 들여다볼 때도 몇 년 전 우리가 파헤쳐



놓은 흙만 소복이 쌓여있을 뿐이었다. 언젠가는 볼 날이 오겠지. 그게 화단에 건넌 내 마지막 인사였다. 그렇게 화단의 체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졸업했다. 체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학교를 떠났다. 나는 재수를 시작했고, 머릿속 체리 나무는 졸업 이후에도 이따금 열매를 맺었다. 화단 속 체리 씨앗은 어떻게 지낼지 궁금했다.

단단한 외피를 깨야 진짜 체리 씨앗이 나온다는 사실, 이 외피를 깨지 않으면 껍질이 썩고 난 후 그 속의 진짜 씨앗이 썩을 틈이기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졸업식이 끝나고 수개월 후의 일이었다. 그야말로 머릿속 체리 나무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정보들이었다. 이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 방문할 일이 생겼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를 둘러보며 추억에 잠기는 것도 잠시, 문득 떠오른 생각에 중앙현관으로 향하며 화단을 돌아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듯 등성등성한 잡초 사이, 소복이 쌓인 흙 사이, 당연하게도 체리 싹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장난스럽게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체리 나무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실을 알고도, 몇 년 전의 모습과 영락없이 똑같은 화단을 보고도 그리 실망스럽지는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몇 년 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은 체리 나무가 한순간에 뿌리째 뽑히게 생겼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처음부터 체리가 자라날지 아닐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버섯버섯한 화단 흙에서, 외피도 안 깬, 수입산의, 접목도 안 한 체리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저 매일같이 관심을 주고 보살피는 과정이었다. 나는 별것 아닌 루틴 속에서 휴식, 즐거움, 위로, 그리고 삶의 원동력을 얻고 있었다. 내가 체리를 키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화단에 묻힌 체리 씨앗이, 머릿속의 체리 나무가 나를 키우고 있던 것이다.

믿음 자체가 주는 힘이 있다.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실없는 상상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습관처럼 이어가는 과정 속에는 나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존재한다. '일분일초가 중요한 수험생'이 흙바닥에 묻혀있는 무언가에 시간과 관심을 쏟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눈에 한심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잠깐 벗어나 허무맹랑한 상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에게만 갖는 의미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 때로는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는 믿음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여겨 체리를 심어 보자는 친구의 제안을 무시했다면 그 과정에서 얻는 많은 것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졸업 후 학교에 방문했던 그날의 깨달음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놓았다. 한창 재수 생활 중 쏟아지는 성적 통지표 속에서 결과주의적이고 염세적이게 되어가던 나는, 그 이후로 체리 씨앗에 물을 주듯 지냈다. 나만의 체리 나무를 기대하며 매일같이 화단을 들여다보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듯 매일을 살았다. 종종 화단 아래 진짜 씨앗이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나에게 체리가 정말로 싹을 틔울지 아닐지, 열매를 맺을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체사진 명소가 된 체리나무 아래를, 급식 메뉴로 등장한 체리 열매를, 자랑스러운 교화가 된 체리 꽃을 믿고 기대하는 과정이 내게 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줄 뿐이었다.

수험 생활이 끝난 후인 오늘도 나는 체리 나무를 상상한다. 잎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를, 그 나무가 있는 푸르른 교정을 상상한다. 있지도 않은 나무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매일같이 이를 상상하곤 한다. 체리 나무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준다. 오늘도 열매를 맺은 체리 나무를 기대하며 머릿속 화단을 들여다본다. 잡초를 뽑고, 물을 준다.

[교무처장상]

8:2

김동준(보건정책관리학부)

내 고향은 제주도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이다. 지금도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할아버지의 거칠면서도 부드러웠던 손과 짹짹하면서도 비릿한 바다 내음,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던 노을이 생각나곤 한다. 그 작은 마을을 떠나 상경해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 풍경은 항상 내 마음속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풍경은 나의 안식처이자, 도피처이자, 또 꿈이기도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무력감이 드는 날도,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를 위로해주던 그 풍경. 어느 날, 나는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겠노라고 결심했다.

그 풍경을 더 자주, 오래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딘가 야망이라도 품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할아버지께 쫓르르 달려가 당신을 따라 배를 타겠노라고 말하자, 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고 호통을 치면서도 은은하게 미소 짓던 얼굴만은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렇게 나의 이 치기 어린 꿈은, 어느덧 나의 전부가 되었다. 네 꿈은 뭐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늘 망설임 없이 해군 장교라 말하며 그 풍경 속에 나를 그려 넣어보고는 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던 풍경을 지키는 나,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꿈과 풍경을 가슴에 품은 채로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나름대로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기에 성적은 항상 중위권 즈음에 머물곤 했고, 점점 멀어져 가는 꿈을 바라만 보며 늘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이었다. 자습 시간 중, 담임선생님께서 상담하자며 불러내어 꿈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성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다시금 들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알고 있다고 대답하며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성적에 대한 타박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선생님은 문제집 여러 권을 건네며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일 지정한 만큼 공부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다. 말문이 막혀 문제집을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자 선생님께서는 어서 가서 시작하라고 나를 돌려보내셨고, 나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로 돌아갔다.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만을 중심으로 챙겨 주곤 한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학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나였기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나를 선생님께서 챙겨 주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나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이 아니지만 정말 인복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공부를 시작하며 성적이 조금씩 오를 듯 말 듯 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2학년이 되었다.

새로이 바뀐 담임선생님과 첫 상담 일정이 잡혀 상담을 위해 교무실로 향하면서, 어떤 말을 듣게 되건 간에 당당하게 꿈을 밝히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자며 스스로 되뇌었다. 나는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후, 지금은 성적이 좋지 않지만 정



말 할 수 있다고 말하려던 찰나에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던 담임선생님은 성적이나 진학에 관한 이야기 대신, 왜 사관학교를 희망하게 되었냐고 물어보셨다.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라 당황한 나머지, 앞뒤 맥락을 모두 생략한 채 “제가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는 그 풍경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라고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답변에 놀라 어안이 병병해져 얼굴이 벌게져 가는 나를 보며 선생님은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사관학교 면접관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멋진 대답을 할 필요는 없었으며, 지금 성적이 어떻든 간에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건 없는 신뢰를 받아 본 경험이 많지 않아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교실로 올라오는 길에 때마침 지고 있는 노을을 보며 그 믿음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말겠노라고 자신에게 약속했다.

뭔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지칠 때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악착같은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나는 성적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결과가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노력이 보답 받았다는 생각에 벅차서인지, 꿈에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기뻐서인지, 성적표를 건네며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표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렇게 두 번째 은사님을 뒤로하고 3학년에 진급한 나는, 더 이상 아무 걱정 없이 상담에서 내 꿈을 말할 수 있었다.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학교장 추천서를 따내고, 어느덧 사관학교 1차 시험 전날 밤이 되었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드디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할 날이 왔다고 자신에게 되뇌며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신없이 시험이 끝나고, 합격을 확인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며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다.

꿈에도 그리던 진해의 해군사관학교로 가 가장 걱정이었던 체력 시험도 과락 없이 통과하고, 다른 시험들 역시 평균 이상으로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인 생도 대장과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 생도 대장은 나에게 왜 사관학교에 지원하였는지 물어보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바다와 풍경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관학교 교문을 나서는데, 때마침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풍경을 본 나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신체검사에서 눈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심의를 해 본 결과 다른 부위도 아니고 눈을 수술 받은 생도가 당해 사관학교 군사훈련에 바로 참가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하여 귀하를 합격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날 내 세상은 무너졌다. 나를 믿어주던 사람들을 실망하게 했다는 자책과 함께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났다. 할아버지를 뵈면목도 없다고 생각했다.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했지만 아무래도 정을 붙일 수 없었고 그렇게 재수학원으로 도피했다. 나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고향에도 내려갈 수 없었다. 항상 나를 위로해주던 바다가, 그 풍경이, 나를 믿어주던 사람들의 기대가 모두 원망의 화살로 변해 나를 하염없이 가라앉혔다. 한순간에 꿈이 사라지고 다시 도전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한참을 도망치고, 방황하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다. 아픈 할아버지가 수술을 앞두고 손자를 보고 싶다고 연락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풍경을 다시금 마주할 자신이 없었지만, 둘러댈 말이 없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 고향으로 향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인 할아버지였지만 무어라 말을 할 면목이 없었다. 그래도 결자해지라 하였으니 온 김에 다시금 바다를



마주하고 원망을 들어야겠다 싶어 어릴 적 그 산책로를 따라 바닷가로 향했다. 무어라 원망 섞인 조소를 기다리는데, 바다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항상 나를 보듬던 그 모습 그대로, 바다는 그저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을 그대로 서 목 놓아 울었다.

그제야 나는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원망을 조금은 내려놓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는 지나간 일에 작별을 고해야 할 때라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이렇게 결정하였다. 24살 짧은 내 인생의 8할은 바다와 함께하였지만, 2할에 해당하는 지금은 새로운 꿈을 찾아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였기에.

3.5×4.5

정해은(사회학과)

나는 이따금 본가 거실 벽에 반듯이 줄지어 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낀다. 특별히 사진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찰나인 행복의 고점에 영원할 시간 축을 박았으니 되레 영리한 행동이다. 때문에 저 액자 속 자리한 나에게도 불만은 없다. 나 또한 파란 안경을 쓰고 웃는 얼굴에서 이제는 추억이 된 기억을 엿보기도 한다. 이 벽면에서 내 신경을 긁는 것은 오로지 시작점의 분실이다. 맨 앞자리에 있어야 할 유치원 졸업사진은 없다. 대신 그 순간의 나는 가로 3.5CM와 세로 4.5CM의 반듯한 네모 칸 안에 포획되어 있다. 서랍 속, 만료되어 구멍 뚫린 진녹색 여권을 펼치면 뺨뺨이 정면을 응시하는 여섯 살의 내가 있다. 여섯 살. 나는 여섯 살에 한국을 떠났다. 여섯 살의 나는 고용불안정성과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렸고, 무작정 아빠의 손에 이끌려 비행기에 탑승했다. 불발된 유치원 졸업과 함께 본격적인 유년기가 도래했다. 여섯 살의 나는 그렇게 이방인이 되었다.

14년. 내가 고려대학교를 스물에 입학했으니 나는 총 14년이라는 기간을 해외에 거주했다. 나는 단순히 인생의 반을 넘게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간에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렇게 일차원적인 생각을 졸업한 지는 한참이다. 게다가 역설적으로 내가 외지에서 키운 것은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이다. 이방인, 외국인, 외지인, 결단코 무리에 섞일 수 없을 타인. 그것이 해외에서의 내 호칭이다. 그들과 '다른' 나는 내밀하게 그어진 선을 넘어갈 수 없는 외부인이었고, 미묘한 배척이 반복될수록 내 뿌리를 향한 갈망은 견고해졌다. 물론, 나의 14년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고단함을 토로하기 위한 상소문도, 감정을 앞세워 호소하는 불행 포르노도 아니다. 14년은 긴 시간이고 개중 행복했던 순간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울고 웃던 파자마 파티, 한 학년이 다 같이 모여 영화를 보았던 저녁, 급식보다 수다를 더 맛있게 삼키던 점심시간 등등. 타국에서의 삶을 오롯한 불행으로 귀결시킬 마음은 없다. 하지만 물질승을 수족관 안에서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내 이름 하나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나는 끝내 낯선 외래어로 표기되기를 택했다. 절벽 끝에 내몰린 선택이었다.

지금의 나는 그들을 이해한다. 꼬리도, 아가미도 없이 물 안에 뛰어든 내가, 딱히 괴물과 다를 것은 없다. 그러나 어린 나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초등학교 때,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 아침 예배를 기피한 건 그 이유다. 신앙의 유무가 아니라 공포의 문제였다. 두려웠다. 내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매 순간이 무서웠다. 교장 선생님이 가볍게 농담을 던질 때마다 '눈치껏' 그 '농담'을 '감'으로 해석했다. 남들의 얼굴 근육을 따라 눈치껏 입꼬리를 올리고 따라 우는 광대 짓을 반복하는 우스꽝스러운 참사가 이어졌다. 그때는 유쾌한 교장 선생님이 너무 미워서 영영 울며 기도를 올렸다. '제발 교장 선생님이 웃긴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습지만 간절한 소원이었다. 받아쓰기를 틀리고 선생님에게 글쓰기를 지적당하는 것과 달랐다. 그들의 웃음과 울음에 함께할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여섯 살로 남아 도태될 것 같았다. 소속감의 부재였다. 이 초조함 속에서 앓던 내가 한 박자 늦게 웃은 날이 있었다.

수십 개의 눈알이 나를 노려본다는 착각에 빠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지만 나는 확신과 함께 벌벌 떨며 눈물을 참았다. 집에 도착한 나는, 그 눈물을 쏟아내는 대신, 계속 참았다. '우리 집에 가고 싶어'라는 말을 속으로 쉴 새 없이 되뇌었다. 충격에 매몰된 것도 잠깐이었다. 나는 결국 물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렇기에 따라 하고 흉내내고 모방했다. 내게는 아가미가 없을지언정 등 뒤에 감은 산소통이 있었다. 그때는 '다른' 내가 결국 한계를 마주할 것이라는 걸 몰랐다. 우습지만, 순진했다.

열두 살이 된 나는 팔다리를 가지고도 물속을 제법 잘 유명했다. A를 받았다. 시험지에 그어진 빨간색 체크 표시가 늘었다. 처음으로 영어 선생님이 상냥한 옥타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 기뻐다. 정말 기뻐다. 그런데, 그 기쁨의 중력은 지구보다는 달의 것을 닮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주어 뛰면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단편적인 행복 때문에 내가 느끼는 이질감이 더 선연해졌다. 내 손을 맞잡은 깍지는 힘없이 남아 간신히 끝을 쥔 형태였기에, 나의 무의식에는 늘 나를 부정(否定)하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잔재했다. 너는 누구야?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목소리에 먹이를 바쳐야 했다. 받아 든 시험지의 알파벳이 선명해질수록 모국(母國)의 한자가 점차 흐릿해졌다. 나는 그제야 그 물음에 바친 제물이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권의 색 말고 나를 한국인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나는 나를 뜯어 나를 먹였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에리식톤처럼 나를 삼켰다. 한국인인 나를 씹어서,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돌연변이를 토했다. 알아차렸다. 받아 든 시험지의 A, 빨간색 체크 마크, 선생님의 칭찬... 그래도 나는 결국, 산소통을 메고 우스꽝스럽게 허우적거리는 이방인일 뿐이라고. 아무리 잘 해봤자 그들에게 속할 수 없노라고. 열두 살, 육 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섯 살에 멈춰 있었다. 3.5CM×4.5CM라는, 작고 좁은 칸 안에 포획되어 있었다. 사회에서 수용되는 언어를 잠시 빌리자면, 나는 재외국민이었다. 그건 정말이지 애매하고 미묘한 말인지라 내 부모님의 국적과 출생지가 의미 없었다. 내가 애매하게 걸친 문화의 품새와 이도 저도 아니게 조각난 언어가 나를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조금만치도 크지 못했다. 어린 나는 여전히 유치원 졸업사진의 카메라 앞에서 가만히 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저 카메라 버튼을 누를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 나를 키울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른 건 별거 아닌 사소한 행동이었다. 정말이지, 그건 한인 학교로의 전학도, 부모님의 칭찬과 애정도, 상장 같은 객관적인 성장의 지표도 아니다. 나는 단순히 컴퓨터 키보드의 한영 변환 키를 눌렀다. 찰칵.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 육 년간 정지했던 카메라의 촬영 버튼이 눌렸다. 한국인이 되자. 내가 성장하고 교육받은 곳과 관계없이 한국인처럼 살자.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오 학년부터 집착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때부터 1:1 노트북 교과과정을 권장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다만 학교의 뜻과는 달리 나는 랜선을 슬금슬금 기어 바다 너머의 '한국인'에게 닿았다. 나의 욕망이 닿았다. 그건 성장의 촉진제였다. 나를 키운 8할은 한국인이 되고자 했던 욕망이고, 나를 키운 1할은 그 8할을 위해 끝없이 글을 쓰고 읽었던 시간이다.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아직도 처음 글을 올렸을 때를 기억한다. 외국에서 자란 티가 날까? 글이 좀 어색할까? 내가 '한국 사람' 같을까? 그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던 시절. 궁극적으로는, 그래. 나는 '재외국민치고 글을 잘 쓴다'는 상투적인 칭찬이 아니라 '글을 잘 쓴다'는 말이 듣고 싶었다. 한국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고 자존감이 가지고 싶었다. 사실, 내게 책의 각진 모서리는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물레 바늘 같았다. 꼭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기묘한 환상이 있어서, 가끔은 그저 지름길로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물

론 세상의 이치는 정론뿐이었다. 내가 받은 칭찬은 탄생과 함께 할당된 진녹색 여권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낸 마패다. 인정받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커졌다. 3.5CM×4.5CM라는 작고 작은 사진이 점점 더 찢어졌다. 나는 그렇게 성장했다.

물론,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던 익명의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나는 뼈대를 지느러미로 얹은 기괴한 짐승이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새 비린내 나는 점액을 발자국마다 남겼는지, 나는 이곳에서 검은 머리를 한 외국인이었고, 진녹색 여권을 가질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언뜻 지나갔던 칭찬 아닌 칭찬이 기억난다. '와, 외국에서 14년을 살았는데도 한국어를 되게 잘하네요?' 그 말투는 진정으로 선량했다. 나는 그자의 목소리에 적대심이 일절 없었고 나를 옥보일 마음이 조금만치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안다. 그는 그것을 참 좋은 마음에 말했다. 그래서 나는 웃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요.'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사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조금은 무력했다.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작아졌다. 하지만 그렇기에 나는 끝없이 타자를 친다. 글을 쓴다. 나를 키운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되뇌고, 인지하고, 증명하고 있다. 3.5CM×4.5CM라는 작은 틀은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지만 상당 부분 찢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한창 자라나고 있다. 나의 용기는 아직 만용이 되기엔 어리고, 분명히 미숙하지만 미비하다 이름 붙이기엔 이르다.

나는 아직 성장 중이다. 나를 키운 8할은 한국인이 되고자 했던 욕망이고, 나를 키운 1할은 그 8할을 위해 끝없이 글을 쓰고 읽었던 시간이며, 지금의 나를 키우는 1할은 모국에 돌아온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반대, 재외국민이란 고정관념, 순수와 무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칠 때마다, 나는 반듯하게 줄지어 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 앞의, 존재하지 않는 유치원 졸업사진을 본다. 마냥 어리기만 하던 나. 분실된 나. 내가 잃어버린 나. 존재하지 않는 사진은 환상 속의 보물섬이기에 나는 그것을 찾지 않는다. 대신 나는 맨 끝에서 빈자리를 바라보고, 꼭 하고 싶었던 말을 곱씹는다. 약속해, 널 3.5CM×4.5CM 안에서 완전히 꺼내 줄게. 타닥타닥, 내 구조대의 발걸음에서 나는 타자 소리를 들으며, 나는 지금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있다. 이 글이 바로 그 증거고 답이다.

나를 키우는 팔 할은 너의 세계다.

박가람(국어교육과)

너의 세계

작년 여름, 학생회 활동으로 배리어 프리 지도 제작에 참여하며 '배리어 프리'가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 배리어 프리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장벽(barrier)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배리어 프리 지도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시설을 표시한 지도를 의미했다. 지도 제작에서 내 역할은 배리어 프리 지도 조사표를 바탕으로 정해진 건물에 '배리어 프리' 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표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점자 블록과 경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작성하는 칸이 있었다.

배리어 프리 지도 조사표를 들고 들어간 건물에서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마주했다.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친구들과 비슷하게 따라 하며 웃었던 엘리베이터의 안내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필요해 보였던 자동문이 왜 필요한지 그제야 깨달았다. 엘리베이터의 안내음은 누군가의 눈이었고, 자동문은 누군가에게 유일한 문이었다. 그러나 건물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장벽처럼 남아 있었다.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경사면이 없는 건물이 있었고, 경사면은 있지만 건물 입구까지 가는 길이 계단이어서 휠체어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건물도 있었다. 어떤 층계는 그 앞에 점자 블록이 없어 위험했고 방역을 위해 붙인 향균 필름은 점자를 지웠다. 나에게 일상적인 건물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내가 쉽게 오르던 계단은 누군가의 걸음을 방해하는 장벽이었고, 내가 쉽게 열었던 문은 누군가의 진입을 가로막는 무거운 벽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는 누군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치사한 목소리였다.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건물이었다. 조금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았을 뿐인데 내가 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졌다.

같은 건물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다른 세계들을 떠올렸다. 세상과 세계. 비슷한 듯한 두 단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世上)은 인간 세(世)에 위 상(上)자가 결합한 단어이다. 반면 인간 세(世)에 지경계(界)가 붙어 세계(世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펼쳐져 있는 세상 위에서 자신만의 경계를 가진 세계를 만들어 간다. 세상이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면 세계는 누군가의 시점이 개입하는 삶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은 하나의 세계로 이뤄져 있지 않다, 80억 명이 사는 세상은 80억 개의 세계로 이뤄져 있다.' 나는 '나'가 주체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동시에 너는 '너'가 주체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너만의 세계를 만든다. 내가 내 세계를 아끼고 치열하게, 복잡하게, 애뜻하게 살아가듯, 너도 네 세계를 아끼고 치열하게, 복잡하게, 애뜻하게 살아간다.

하나의 세상이 80억 개의 오밀조밀한 세계로 이뤄져 있다고 해도, 나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그 삶을 모두 다 살아볼 수 없다. 소설의 시점으로 말하자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신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한 곳에 하나의 시점으로만 존재한다. 그렇기에 나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한평생을 살아간

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시점으로 들어갈 수 없다. 치열한 노력 끝에 겨우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너의 이야기를 내 안에 담을 수 있을 뿐이다.

팔 할

이덕무는 좁은 자신의 서재를 '팔분당(八分堂)'이라 이름했다. 서재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묻는 손님에게 이덕무는 찬찬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은 모두 십 분의 선한 본성을 지녔지만 자라면서 그 선한 본성을 점차 잃는다. 그는 자신이 보통 사람처럼 선과 악을 오 분씩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선인들도 십 분에 이르지 못하는데 자신의 선함이 구 분에 이르길 바라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한다면, 다행히 육 분이나 칠 분에 도달"¹⁾할 수 있는데, "육 분이나 칠 분을 바라는 것"²⁾은 너무 낮은 뜻이다. 이덕무에게 구 분과 칠 분 사이 '팔 분'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기쁘게 받아들여 힘써 노력할 수 있는"³⁾ 정도다. 그러니까 '팔분당'이라는 이름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나는 이덕무의 '팔 분'을 생각하며 내가 완전히 가 닿을 수 없는 '너의 세계'를 떠올렸다.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는 나는 '너의 세계'를 온전하게 너의 시점으로 살아볼 수 없다. 어른이 되어 버린 나는 어린이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출신 국가가 한국인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핀란드에서 태어난, 중국에서 태어난 '너의 세계'를 십 분 알 수는 없다. 비장애인으로 21년을 살아온 나는 장애인으로 21년을 살아온 삶을, 11년을 살아온 삶을, 31년을 살아온 삶을 온전히 상상하고 제대로 말할 수 없다. 아직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존재하는 나는 자식을 잃은 세계의 슬픔에 완전히 가 닿을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시점으로 들어가 너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없다. 그래서일까, 나는 종종 '너의 세계'를 잊는다. 보이지 않는 '너의 세계'를 잊고, 안락한 나의 세계를 견고히 하며 내 세계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한다. 그 착각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는 내 출근길을 방해하는 '난리'가 되고, 자식의 죽음을 기억하려는 몸부림은 "징하게 해쳐 먹는다"⁴⁾이 된다. 나와 같은 세상을 살고 치열한 주체로 각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인데, 내 세계가 애뜻하듯 모두의 세계가 그 나름대로 애뜻할 텐데,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누군가의 세계를 지운다. '장애인'으로, '유가족'으로 요약해 버릴 수 없는 '너의 세계'를 낱작하게 정리한다.

살아가다 마주하는 '너의 세상'들은 이러한 나의 손쉬움을 꾸짖는다. 그 꾸짖음은 무지하고 안락한 내 삶을 혼돈다. 동시에 나는 너의 세계를 십 분, 구 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한계 앞에서 작아진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살아 볼 수 없을 뿐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너의 세계에 오 분, 육 분이나마 가닿기 위해 팔 분의 노력을 할 것이다. 네가 너의 세계에서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그 다채로운 세계를 모르고 지나치는 무지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담은 너의 세계는, 나를 키운다.

1) 이덕무, 오창희 공역, 「이덕무 편 5-2. '팔 할'의 선을 향해」, 『낭송 18세기 소품문』 [전자버전], 북드라망, 2015.

2) 이덕무, 오창희 공역, 위의 글.

3) 이덕무, 오창희 공역, 위의 글.

4) 김미나, "세월호 유가족에 "징하게 해쳐 먹는다" 망언한 차명진, 당원권 3개월 정지", 『한겨레』, 2019년 5월 29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858.html>, 2023년 5월 30일.

키우다, 크다

오랜만에 본 사촌 동생의 키가 훌쩍 자랐을 때, 나는 '너 많이 컸다'라고 말했다. 커가는 아이는 위로 자란다. 적절한 영양분과 사랑이 아이의 키를 키운다면, '너의 세계'는 나의 마음을 키운다. 커가는 내 마음은 위로만 자라지 않는다. '너의 세계'를 내 안에 담으며 내 마음은 점점 넓어진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담고 또 담으며 두꺼워지는 『천일야화』처럼, 여러 겹을 쌓으며 뚱뚱해지는 양파처럼, 새로운 세계를 품을 때 나는 점점 자란다. 나를 키운 팔 할은 너의 세계다. 과거형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키운'을 '키우는'으로 바꿔본다. 나는 여전히 크는 중이고 더 커야 한다. 너의 세계가 나를 키우고, 무한한 너의 세계를 통해 나는 클 것이다.

김애란은 자신을 키운 팔 할을 어머니의 삶이 녹아 있는 칼국숫집 '맛나당'에서 찾았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더 낳는 대신 국수가게를 차렸"⁵⁾고, '맛나당'에서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며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집을 장만했고, 딸들에게 책과 피아노를 사줬다. 그는 세 딸의 학비와 방세, 생활비를 모두 대면서도 딸들에게 생계를 책임지라는 말없이 "삶을 자기 것으로 가꾸"⁶⁾었다. 칼국숫집 '맛나당'에서 목격한 어머니의 삶은 김애란에게 스며들고, 그는 그 세계를 꺼안으며 자랐다. 나도 '너의 세계'와 마주하며 자랐다. 머리가 커지고 이해할 수 없다며 미워한 엄마가 어느 날 밤 '내 엄마'가 아닌 '한 여성'의 목소리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의 삶은 '너의 세계'가 되어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나는 내가 전보다 커졌다고 느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내 안으로 담으며 비로소 나는 내 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 너머의 두터운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눈과 가까워졌다. 「모린」의 영은이 별의별 사람이 각자 가진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누군가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은 "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사정"⁷⁾이라 말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마주한 '다니엘'의 삶은 사회적 약자의 세계를 타자화하던 나의 무지를 깨뜨렸다. 성실하게 일해 온 목수였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 질환으로 계속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생활비가 없어 질병 수당을 신청하지만, 자격 미달로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어쩔 수 없이 실업 급여를 신청한 다니엘의 삶을 알지 못하는 심사 담당관은 그를 '게으른 노인'으로 취급할 뿐이다. 다니엘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에 임한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 전 그는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다니엘의 친구였던 케이티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그가 남긴 글은 '너의 세계'를 외면하던 나를, 우리 사회를 일깨운다. "나는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⁸⁾ 어렵듯이 알고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시선 속에서 '다니엘의 세계'는 게으른 삶으로 쉽게 요약된다. 다니엘의 세계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겹의 다니엘의 세계를 여러 겹 그대로 내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담아야 한다. 수많은 너의 세계를 다른 모두의 세계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꺼안을 때 나는, 우리 모두는 자랄 것이다.

아이는 자랄 때 성장통을 겪는다. 너의 세계를 담으며 마음이 커갈 때도 나는 성장통을

5) 김애란, "[나를 키운 8할은] 김애란 "내 유년의 정서를 만든 맛나당", 『한국일보』, 2017년 9월 16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858.html>, 2023년 5월 20일.

6) 김애란, 위의 글.

7) 안윤, 「모린」, 『팔꿈치를 주세요』, 큐큐, 2021, 44쪽.

8) Loach, K, 감독,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사 진진, 2016, 100분.



않는다. 내가 모르던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은 언제나 불편함을 수반한다. 보기 싫은 것을 들어야 하고,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안으로 품는 건, '이상한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으로 요약하는 것보다 번거로운 일이다. 그 불편함을 견딜 때 조금 더 번거롭게 살아갈 때 나는 그제야 조금씩 크다. 내 세계가 넓어지고 우리 사회가 커진다. 나는 내가, 우리 모두가 너의 세계를 통해 점점 크길 바란다. 그 마음을 담아 나를 키우는 팔 할은 너의 세계라고 적어 보았다.

새 같은 그 소녀

양정약(자유전공학부)

사람들은 항상 환경이 한 사람의 성격 형성을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가져갔다. 어느 쪽이든 그들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봉인되어 간직하게 된다. 내가 걸어온 20년 동안 가장 잊지 못할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그 새 같은 소녀이다. 지금 내 생활 중 팔 할은 그녀가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에 다름없이 홀로 그 길고 갈림길이 많은 골목을 지나서 이 좁은 방에 돌아왔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힘을 다 빠지듯이 침대에 쓰러졌다. 오전 내내 교실에 편안하게 앉아서 수업만 들으면서 왜 매일도 이렇게 피곤한지 모른다. 창밖에 보면 날씨가 따뜻하고 푸른데 왜 내 마음은 책상 위에 시든 꽃처럼 생기를 잃은 것 같다. 새들은 힘찬 날개를 치며 파닥파닥 내 창문 앞을 날아갔다. 자유롭게 언제나 희망을 느끼게 만드는 새들이 부럽다. 땡땡, 핸드폰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다. 밤에 친구들과 약속한 저녁 식사였다. 원래 평소처럼 이불 속에 틀어박혀 영화를 보고 그 속 인물들의 경력과 그 감정 기복에 대한 공감으로 나의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한 생활을 조절해 보려고 했는데 친구는 “너는 자주 나가 봐야 해”라는 이유로 내가 참석하도록 권했다. 그날 밤 거절하려던 모임이 나의 생활방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내가 부러워하던 생기 넘치고 활기찬 새도 앞으로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유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석양 무렵 버스정류장에 도착해 차를 타고 모임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가을 석양이 은행잎을 비추고 있어서 길이 온통 금빛으로 물들었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석양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여름의 풀밭, 밤의 빗소리, 가을의 낙엽도 좋아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그저 덤덤하게 힐끗 보고 아무런 흥미도 없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고 있다. 깃털이 유순한 비둘기 두 마리가 활개를 치며 나의 발 옆을 지나갔고 그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한 모습까지 보여서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날의 첫 기쁨을 수확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멀리 친구와 함께 서고 있는 금발의 소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마치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을 묘사하듯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며 활기차고 팔짝팔짝 두 손을 흔드는 모습이 새처럼 느껴진 게 첫인상이었다. 식당에 들어가 앉고 그 아이가 전에 임시로 결정한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강릉에서 일출을 기다리며 인천을 향해 일몰을 쫓는 게 목적이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갑자기 생각나고 결정한 것이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달려가서 일몰을 보았다. 사진 속에 하늘은 모두 핑크빛으로 그날 버스정류장에서 힐끗 본 경치보다 더 아름답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들은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고 운 좋게 바다가 잘 보이는 동쪽 방을 호텔에 예약했다. 모든 짐은 편의점에 가서 산 것이다. 일기예보를 미리

조회하지 못해서 강풍까지 맞았지만, 영상 속에 머리카락이 마구 날려도 불꽃놀이를 들고 환하게 웃는 소녀의 모습은 그때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다음날 소녀들은 해가 조금씩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을 침대에 누운 채로 바라보다가 갈매기는 창문을 지나 날개가 바람을 깨뜨려서 빛과 그림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렸다. 전체 영상의 화면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해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가?

그 후에 그 소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한국에 온 지 몇 달 만에 마치 자유로운 새처럼 부산으로 날아가 바다를 보고, 제주도에 가서 문화 체험을 하고, 스키를 타고, 음악 축제에 간 순간, 내가 그 좁은 방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녀보다 조금 일찍 한국에 왔지만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그 좁은 방 말고는 특별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아쉽다.

작년에 혼자서 큰 짐을 지고 처음으로 집에서 멀리 바다를 건너서 낯선 도시에 도착했다. 잔뜩 기대했던 마음은 언어불통, 학업의 압력,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불안감과 초조감에 차츰차츰 무엇에도 흥미와 열정이 없어졌다. 옛날의 나도 석양을 사랑하고 구름도 쫓고 낙엽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언제부터 원래의 나를 잃어버린 건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점차 입을 열 자신이 없어질 때,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시험의 성적이 거의 오르지 않을 때, 아니면 진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초조하게 통지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인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다 잘 됐다며 웃어도 아빠는 내가 조금 성숙해져서 그런지 예전에 집에서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지금 사는 게 즐겁지 않으면 집에 와서 다른 길로 가도 된다고 또 말씀하셨다. 예전에 집에서 항상 부모님에 의해 보호받았었는데, 유학을 나와서 일은 모두 나 혼자 공부해서 해야 했다, 혼자 연기하고, 혼자 이사하고,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은 별일이 아니었는데 단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진 곳에서 관심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내가 날마다 재미없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새 같은 소녀는 이렇게 날아들어 와서 힘찬 날개로 먹구름을 흩어지게 도와주며 나의 세상에 원래 존재했던 나는 자신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색깔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인생의 이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비에 젖은 후에야 땅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우리는 자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삶에 눌러 속수무책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남은 건 시간에만 맡길 수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가는 길의 풍경을 즐기자.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단 한 번의 인생은 매일도 후회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신선한 꽃다발을 사서 책상 위에 놓자 꽃향기가 좁은 방을 쉽게 채웠다. 방이 좁아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 나는 열정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고 적극적으로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서 많은 행복을 받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다. 나의 마음가짐이 변한 이후로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즐거웠다. 한 번은 내가 부산 여행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했는데 친구는 나의 여행 사진을 보고 "너 진짜 새처럼 돌아다니네"라고 말했다. 나는 또 그 새 같은 소녀가 떠올랐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여전히 새처럼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나에게 준 변화는 나로 하여금 매일 열정적으로, 후회 없는 나날을 보내게 했다. 그날 그녀가 황혼을 감싼 채 내 세계로 날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즐거운 추억들과 지금 내게 소중한 친구를 갖지



못했을 것 같다. 다른 의미에서 나를 키운 팔 할은 새 같은 그 소녀가 나에게 준 것이다.